

이제 더이상 경관 공해는 용납될 수 없다

We Can't Tolerated a Public Scenery Nuisance Any more

尹汝郁/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심환경
by Yoon, Yeo-Wook

도시문화속에 건축의 표상성 상징성과 인간과 환경의 상호(조정) 작용으로 Territoriality 문제를 제시한다.

1. 신체와 얼굴

바벨(Bar Bell), 덤벨(Dumb Bell)등 무거운 운동기구를 사용해서 근육을 단련하고 균형적으로 발달시켜 근육미가 있는 신체의 체조를 Body Building 이라한다. 빌딩이란 말을 우리들은 많이 세우고 부수고 의미없이 심었다. 신체의 근육은 강한부분을 더욱 강하게 약한부분은 더욱 약하게 각기관 미세한 부분까지 전신에 올리브기름을 발라 남성은 강하고 우람함과 여성은 날씬한 아름다움을 표현하지만 많은 기름을 바르면 오히려 빛에 반사되어 신체의 표현력이 떨어지며 관객의 감정도 떨어진다고 볼 때 꽃의 아름다움보다 어린아이의 웃음표정이 더욱 아름다운 것이다. 올바른 외피 구성방법은 현재 상태에서 계획을 진행하면서 전체적 균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심신의 자유스러움을 필요로 한다.

신체를 중심으로 앞은 뒤의 정반대의 것이며, 앞은 뒤보다 다양성과 조화된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건축물의 전면을 얼굴과 같은 원형이라 할 때 창과 같은 두 눈, 환기구 같은 두 귀, 캐노피 같은 하나의 코, 개구부(Door) 같은 하나의 입, 머리와 같은 지붕으로 구성된 얼굴표정이 마음속에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체상 감각체계는 신체중심(Land Mark) 좌표(심장, 뇌, 위와 입)와 신체경계(Body Scape) 좌표(수직좌표, 수평직각좌표, 피막, 안면, 두부, 시각)이다.

건축의 Facade는 단순한 게시판, 광고판이나 Hard Edge 같은 그래픽이 아니고 외적지각(External Perception)과 내적지각(Internal Perception)을 복잡하게 암시하는 것으로써 신체경계(Body Scape)의 피막은 벽과 창을 암시한다.

2. 창과 벽

창과 벽 양면성 이미지 표상에 대해 풍경이 정해지고 수평·수직방향의 상호운동적 에너지를 균형있게 조절한다. 조절은 경관의 원리이고 경관은 그 자체의 원리로 발전하지 못하고 부속물로 발전하여 조화의 공포성을 갖는다.

둘 이상의 이질적 요소가 합쳐서 어느 일방으로 편향됨이 없이 전체적으로 균형미를 형성하는 것을 조화라고 일컫는다. 하늘과 땅에 결부되어 조화는 자기중심에 있고 의미, 형태, 색채, 행위 그리고 경관 모두가 조화로 대조적 갈등을 해소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경관 환경지대는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고 수많은 형태는 도안적이고

간판이나 광고용이 되기도 하지만 보조기억장치로써 경관 보존 산물임에 분명하다.

Copper Design를 지니게 한 것은 부분적으로 창과 벽 지붕의 역할관계(Roofing, Facade, Detailing)를 모색하며, 그 시대에 특유한 기술만으로는 아름다운 디자인이 요구된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며, 퍼사이드의 실천능력을 갖춰 나갈 때 그러한 요구에 부합하게 된다.

창은 빛의 욕구를 받아들이고 조절할 때 ① 태양광선 ② 광의작용 ③ 공기와 빛 ④ 색 ⑤ 명암(빛과 그림자) ⑥ 심리학적 효과 등에 스스로의 존재형식을 찾아 연출되고 우리들은 자연과 무난한 일치성 능력을 길러가야 될것이다. 초가지붕 아래 창호지로 보이는 다듬이 방망이 치는 어머니의 호롱불빛에 비쳐 보이는 모습은 분명 우리의 정감어린 옛 모습이였다.

일부 또는 전부의 경관 이미지 표현기능은 외관재료를 선택하는데 시작하여 디자인의 규범을 유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높은 수준으로 발전을 기초적인 조건으로 받아진다고 볼 때 글과 말로 흥미를 획득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이 또 그 이상으로부터 요구라는 것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결코 문제가 되지않고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퍼사이드 이미지 결합은 ① 선의구성 ② 면의구성(분할, 합성) ③ 텍스처의 구성 ④ 입체구성 ⑤ 경관의 구성으로 어프로치 되고 커뮤니케이션 상황으로 나누어 기록 고찰할 수 있다.

3. UR패션의 지분

지붕이 머리라고 한다면 헤어스타일 패션 또한 헤어 디자이너의 손길에 의해 미화되어지듯 외벽에 비하면 눈에 띄지않는 존재로 인식해 왔고 흐르는 세월에 고리를 걸고 어떤 작가의 주택작품은 이층 벽이 없어지고, 지붕으로 덮고, 모자가 커지고 변화의 운동성이 그 이유가 된다.

높은 비교문화 경향의 시야 확대로 국제간의 탈지역주의가 유행되고 창공을 비상하며 UR 패션을 자아낸다. 세차게 밀려오는 인터내셔널리즘이냐 글로벌리즘이냐의 물결을 미쳐 헤아릴 겨를도 없이 휩싸인 현실속에 아담한 한옥 지붕 아름다운 우리의 산이 그림다. (석굴암 아침경을 못보면 한이로구나! 어느 노래가사중에)

Top Light와 Atrium은 빛과 접촉하여 진화된 녹음낙원은 자연과학의 축소판이다.

Dome, Space Frame(Mero Truss), Membrane Structure 등은 엄청난 무주(無柱) 대공간의 창출로 자연의 설화를

일부담아 EXPO(국제화·개방화)장으로 축제를 이루고 쾌적한 도시환경 창조위해 빛의 테마는 한없이 기술의 진보와 인간의 감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4. 표준화와 법의 장애

공업화된 경관의 규격품의 건물 정의는 통일성과 건조시의 이점은 있으나 다양성 결여로 양산과 규격에 이점을 안고 바람직한 구상적 외관설계의 다양성 유통성이 새로운 생산에 의한 과학적 사고의 창의력 재고 등에 전환되어야 할 것이고 질서도 창의도 플랜이 없이 탄생하지 않으며, 플랜은 그 자체에 감각의 본질을 갖추고 감각의 본질 그 자체에 새로운 플랜을 필요로 한다는 Le Corbusier의 도시구조의 분석 근거를 들고있다. 반복된 규칙은 Vitality를 취약케 할 염려가 뒤따르며 어느 누구도 그러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건물형태 크기가 높고, 속길이, 옆길이 등으로 만족시켜야 할 욕구의 요소들은 법의 한계성에 Human Scale적인 건폐율 용적률을 탄생 못하고, 건축주의 물리적 공해 욕구들은 기형아를 출산하며, 인체공학, 물리적, 기하학적 재료의 성질 등이 복합적 요소가 정상이로 태어날 때 그 의미가 독자성과 보편성을 가진다고 본다. 보편성의 추구와 제어된 모습은 고도의 세련 그 이상의 의미 추구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높은 감각과 심미안을 필요로 한다. 감각과 직관은 이론 정립에 우선하지는 않으나 건축의 다양성을 위해선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5. 시간·공간·장소

경관 역할이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삶의 행위를 생성하며 미래의 꿈을 위해 밝고 풍요로운 물적 환경을 발산하는 상황들이며, 動과 情이 제공되고 도시문화 환경을 살리기 위해 시간·공간·장소가 주어진 일들이 바로 그것이다. 경관의 파노라마는 도시의 형태를 발전시키고 사람의 내적합리와 경관 공해의 비합리 사이에 사회학적 호기심을 유발한다. 자연속에 현실적인 경관 미학은 예술과 사회학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중요시되며, 신세대 젊은 남녀가 호기심을 길러 새로운 슈퍼 패션인으로 현대 유행을 표출함으로써 과거, 현재, 미래가 맞물려 교차하고, 거리마다 경관 패션 행위는 사람에게 정신 이상자로 마비를 주는 한계선상에 유추적 시각의 유희와 자유가 피상적으로 교감되고 유행되어지나 그것이 스타일로 정착하고자 표정을 흘리고 하얀 피부살을 드러낸다.

경관 공해의 원인들은 현재보다는 훨씬 더 학구적인 이념이나 체계화된 기반이 약한 탓도 다소 있었다는 주장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그보다 군사문화의 획일적, 폐쇄적, 통제적 정책에 순치되어 제각각 주장을 펴볼 용기가 없었던 수직적요소(관청건물) 시대를 거쳐 새롭게 들어선 문명정부는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어려움에 부딪쳐 경관들이 아름답게 정리 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진실과 순박한 의식을 억누른다.

박제화(剝製化)된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날 사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호프만 교수는 아름다운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하고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분자의 미학에서 풍요성(복잡성)의 미가 예술의 미학과 유사하다 하였고, 아름다움의 발견의 접근방법 시작은 선을 긋는 것보다 와해된 부분을 시각과 감성으로 찾아내는 혼련의 기술이 우리들의 무계획적인 사고행동에 제동을 걸고 풍요와 현상에 균형과 안정을 지키고 아름다운 자연속에 충분한 관계로 접촉하여 변화와 흥미는 생성되지 않으며 평범하고 단조로운 성격만이 강조되는 것이다. 절제하되 궁핍하거나 위험찬 경관으로 남지 않도록 하기위해 남다른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어떤 문제는 다수의 경험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추종할 수 없기 때문이다.

6. 경관의 관계와 의미

경관 의미는 사적영역보다 공공적 영역에 속하며 사람과 건물들(寺院建築의 石燈, 石塔, 浮屠, 石碑) 사이에 교향곡 역할이고, 배타적인 독자성보다 고도한 종류의 공간으로 건물 자체를 초월하여 도시적 영역의(街路, 交通, 余暇) 시스템으로 짜여진 표상 기능과 Identity를 펼치는 모친적 모태의 이미지다. 그것은 순박한 인간적 Enclosure을 창출하고 난로불(초롱등)에 일어나는 온기를 느끼는 것이다.

H Beam, Pipe, Con기둥 등으로 구조미가 드러나고 남성적 심벌을 기념하는 기둥노출은 여성을 매혹시킬 때 공해 요소로써 열주들의 행진은 바지(벽) 속으로 숨겨져 버리고 또한 여자의 종아리가 취약점으로 드러날 때 치마 속으로 감추어진다.

경관 환경은 인간, 공간, 환경 그리고 건축(관계와 의미)으로써 "I-Thou" Relation(보존) "I-IT" Relation(개발)의 공존적이며 보존과 개발 관계로써 생태계 파괴를 줄이고 회복(Restoration) 및 관리를 함으로써 더이상의 경관 공해를 용납할 수 없는 이것들이 빛과 힘을 지니고 생활양식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Utopia 아닌 Entopia로 인식되고 어떤 속으로 배회(徘徊)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는 곳마다 경관은 각양각색이다. 거기에 작위적 건축으로 경이로움과 불가사의한 양태로 변모시켰다. 경이로움은 정확함에 근거를 두고 있고 영속성은 완전함에 있으며 Vitality는 한치의 오차없는 신진대사가 필요하듯 경험적 의지가 없는 것은 평범한 것들로 이어지고 흘러 보내게 되고 규범속에 충족시키는 일이야말로 새롭고 순수한 경관의 전진과 실제적인 경관의 정착을 기대하고 중요한 사실로 발견하게 될것이다.

오늘날 남산 제모습 가꾸기 사업의 하나로 각지역에 있는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 한옥들이 자리 이전으로 남산골에 한옥촌 보존과 개발의 동시 합주곡 관계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의 공간을 침식하며 위협하고 있는 기형적 경관 공해를 막고 건축가인 우리가 열쇠를 쥐고 정부의 현실적인 관심으로 대책과 노력을 새롭게 강구하지 않으면 그 모호성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이 순간 산과 바다, 물(낙동강의 폐놀이후 병커C유 대량유출로 인한 수돗물 오염의 고통과 불안)과 공기가 오염되듯이 우리들에게 또한 경관 허구의 실상에 의하여 몸도 마음도 비뚤어지고 허물어져 간다.